

寄協 京畿지부를 찾아서

르
뵈

순박한 농군상대의 보람찬 구충사업

서울역전 버스터미널에서 水原직행 고속버스를 탄것이 19일 오후 3시 15분—, 기자가 탄차는 낭만어린 京水街道를 경쾌하게 달린다.

찌는듯한 무더위도 잘 포장된 아스팔트위를 달리는 버스속에선 차라리 시원스럽기조차 하다.

전설어린 지지대고개를 넘어 수원 북문에 도착한것이 4시10분 정각. 서울이란 테두리에서 기자가 출근하는시간이 1시간30분이 걸리니 어찌보면 서울 시내 출퇴근보다 수원출근이 더 빠를지도 모른다.

환경조성이 잘되어있는 경기도정부 청사의 산뜻한 모습이 시원스럽다.

넓은 마당의 아담한 수목들이 한결 청순함을 돋구워준다.

안면이 있는 정상준검사소장, 합

병수기사가 반갑게 맞아준다.

본부에 근무한적이 있는 金範서 무과장, 咸正雄사업과장이 도청 보사국장과 업무협의차 다녀오는 길이라며 기자의 손을 힘차게 잡아준다.

동겨오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경기지부의 인화단결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전임 본부 공보과장이었던 咸正雄과장은 일선 사업부서에 내려와 서야 비로소 홍보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했노라고 PR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한다.

농촌의 산골짜기 순박한 시골농군들에게 기생충의 위해와 구충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란 여간 힘드는 노릇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얼마전에

부임한 변창순국장을 위시하여 김범, 성경웅과장등 세사람의 트리오는 시골의 방방곡곡을 순회하느라 검게탄 얼굴로 체중이 3kg이나 줄었다고 너털웃음을 웃는다.

전 공보과장의 관록으로 성과장은 경기지부의 독특한 공보업무를 자랑스럽게 설명한다.

학생하기의료봉사단의 의료지원 사업으로 무료검사 무료투약을 실시, 지원하고 있으며 체변봉투 포스타등도 무료제공하고 있다.

경기지부에서 만든 기생충예방안대서를 산업장 양호교사등을 통해 배부, 일목모연하게 기생충의 위험을 설명한다고 한다.

또한 해군홍보단에 약품을 지원해서 낙도주민들에 무료검진 투약도 7월중에 실시 한단다.

정상준 검사소장은 경기지부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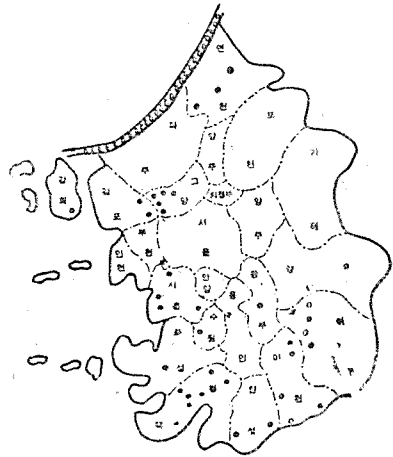
모든지역이 한강유역이기 때문에 肝지스토마 환자가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낙동강유역에 肝지스토마 환자가 많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춘계검진결과 무려 간지스토마 환자가 750명이나 발견돼 전체검사자의 0.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肝지스토마의 수명은 30년이고 아직까지 구충제가 없기때문에 이것에 감염되면 나올수가 없단다.

최선의 구충방법은 우선 안질리

경기도지역 간지스토마 감염분포도

- 표가 감염자가 발견된 지역



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

민물고기를 生食치 말것과 채소를 5회이상 씻어먹는 습관이 생활화돼야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검변사업에 한치도 착오가 없게하기 위하여 앙케트를 작성, 각학교등에 배부하여 일일히 회답을 받아서 기생충 사업실천에 많은 참고자료로 삼고있다.

한가지 에피소드는 어떤 양호교사는 춘추검진실적의 변동상황(例 봄→높고 가을엔 낮은것)을 잘 모르고 왜 가을에 투약을 했는데 봄에 기생충이 많이 나오느냐고 약의 효과가 없는것이 아니냐고 반문

할때 모든 상황설명을 하느라 진땀을 뺀다고 절절 웃는다.

이번 春季검변에선 총 924,304명의 88.8%인 821,181명을 검사해서 그중 회충이 34.9%, 12지장충은 329명인 0.04%가 검출돼서 작년 춘계 회충감염율 43.4%보다 8.5%가 저하되었고 12지장충은 0.1%보다 0.06%로 감소되었다고 그간의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

김범 서무과장은 경기지부의 사업목표로 1. 초중고학도 검변사업

2. 산업장 근로자 검변사업 3. 대민부로 검변사업 4. 새마을 자조협동예의한 검변사업 5. 기타사업(공무원 접객업소 일반주민)을 기조로 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기협 전체의 사업목표로 삼아도 좋다고 자랑이다. 숙식을 아예 지부 3층에서 하며 지부사업에 열중하는 김과장은 과거의 관록으로 외교를 벌여 경기지부의 면모를 일신했다며 한창 자신만만하다.

(C 記)

트막상식 ★

결혼날짜는 의사와 상담을

옛날부터 혼인 날짜의 택일은 전적으로 신부측에 일임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밀월여령때 월경출혈로 교실에 지장이 있는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배려때문이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결혼식날짜는 예정월

경 1주일전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결혼후 1주일째 되는 날은 신혼여행동안 뜨겁게 단 심신이 일단 휴식을 취하게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시기에 월경이 시작되면 섹스의 잠정적인 휴식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가족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눌수 있을만큼 친숙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신혼생활의 재미가 일생동안의 부부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선배들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임신과 일공유산 그리고 영구불임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하자면 아무래도 날짜는 의사와의 상의가 좋겠다.